

인터뷰

“성실·정도 경영의 신념으로, 건설산업 외길 50년의 산증인”

- 2013년 건설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훈, 67주년 남화토건의 장수 발판 다져 -

2013 '건설의 날'을 맞아 전남 지역 중견 기업인 남화토건의 최상준 대표이사 부회장이 건설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최상준 대표는 '건설 외길 50년'을 걸어온 근대 건설산업의 산증인으로서, 각종 국가 기간시설의 건설 및 주한미군 공사 수행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한 것은 물론 어음 미발행, 무차입 경영 등 남화토건의 '장수 기업' 발판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가 경영을 맡고 있는 남화토건은 태동한 지 67년이 된 장수 기업이며, 지난해 초에는 광주·전남 지역 건설업 체로는 최초로, 그리고 전국 건설사로는 스무 번째로 코스닥에 상장해 기업 가치를 한층 높이기도 하였다. 최상준 부회장은 남화토건의 창업자인 최상옥 회장의 동생으로 현재 광주상공회의소 부회장,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 (사)한국산학협동연구원 이사장, 대동문화운영위원회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지난달 21일 최상준 부회장을 만나 수상 소감과 경영 비결,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최상준 남화토건(주) 대표이사 부회장

산업계 최고의 표창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지난 1964년 4월 건설산업에 투신한 이래 현재까지 '성실·정도 경영'을 철학으로 삼아 '건설 외길 50년'을 걸어온 것에 대하여 정부와 건설업계가 인정해 준 데 대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로 창립 67주년을 맞은 우리 회사가 이번에 저의 금탑산업훈장 수훈으로 금·은·동·석탑 훈장 4개 등급 모두를 수상함으로써 그랜드슬램 금자탑을 세우게 된 점을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는 오랫동안 한 몸처럼 회사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온 남화 가족 임직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로서, 회사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화토건이 금·은·동·석탑 등 4개 등급 산업훈장을 모두 수상한 것은 광주·전남 건설업체로서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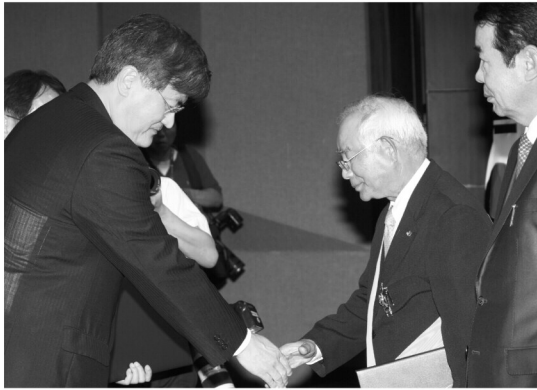
제 형님이자 창업자이신 최상옥 회장께서 1997년 한국 건설 50주년을 맞이하여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건설협회에서 제정한 「위대한 건설인상」을 현대건설故 정주영 명예회장과 함께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2007년 6월에는 건설 60주년을 맞아 건설산업 유공으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0년 3월 납세 유공으로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영예로운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습니다. 지역 최초로 떠나 지역 재계와 회사 모두에 경사로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남화토건은 지방 토착 장수 건설기업으로서, 전체 건설업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업력을 갖고 있습니다. 60년이 넘게 회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오신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회사는 지난 1946년에 창업하여 올해로 창립 67년을 맞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입니다. 최상옥 회장이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 등 척박한 풍토 속에서 격변기를 이겨내며 '근면과 성실'을 모토로 회사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1958년 「건설업법」이 제정되자 법인을 설립하여 면허를 받고 그동안 자영업에서 얻은 경험과 열정, 도전정신 등을 바탕으로 국토 건설 및 지역 경제를 역동적인 성장으로 이끌어오으로써 각처에서 신뢰와 명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님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회사에 50여 년 재직하는 동안 한눈팔지 않고, 오직 건설업만을 천직으로 믿고 살아 왔습니다. 오로지 '성실과 정도 경영'만이 회사의 발전과 성장을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해 왔으며, 지금도 이러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내실 경영과 상생을 강조해 왔습니다. 차입 경영과 어음 발행은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매달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협력업체들과도 굳건한 상생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건설업계 평균 부채비율이 150%대, 영업이익률이 4.2%대인 데 비해 우리 회사는 21%의 부채비율과 6.9%의 이익률로 월등한 재무 건전성 및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이 오래 가는 비결 중의 하나는 바로 임직원입니다. 임직원들이 능력을 갖춘 정예 요원으로 구성되어 한 몸처럼 회사의 성장을 위해 헌신하고, 회사는 임직원들의 헌신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

인터뷰



고 대우해줄 때 장수 기업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구조조정이나 명예퇴직 한 번 없는 인사관리와 이를 통한 노사 화합, 직원 건강과 학업 활동을 지원하는 복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남화토건이 장수 기업으로 성장해 온 데는 독특한 기업 문화가 한몫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회사의 기업 문화는 내·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내부에서 바라본 기업 문화는 '내유외강(內柔外剛)' 형이며, 외부에서는 '내강외유(內剛外柔)' 형으로 바라봅니다. 회사의 문화 가운데 노사 및 상하 직급 간에 상명하복의 문화는 없다고 자부합니다. 사용자는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참작하고, 근로자는 서슴없이 자기의 견해를 제시하여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목표에 접근하도록 상호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문화가 창업자를 중심으로 67년 동안 탄탄하게 이루어져 무형의 자산이 됨으로써 사랑받는 향토 기업, 장수 기업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앞으로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발전하는 데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부회장님께서서는 사회공헌을 위한 각종 기부 실천으로 업계의 귀감이 되셨는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기업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사회적 책임을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기업이 단순히 성장과 이윤만을 추구하는 경영에서 벗어나 봉사, 복지, 후계자 양성의 분야에 사회적 책임을 안고 지속적으로 광범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공헌 활동은 경영자의 의지와 이해 없이는 어렵습니다. 저의 생활 철학은 근검과 절약인데 평소 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주지 않는 경제력 이외의 재산은 대부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72억원 정도를 기부하였는데 앞으로도 장학재단, 학교 및 의료 시설 확장, 사회·종교 단체 기부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나갈 생각입니다.

끝으로, 후배 건설인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전해 주십시오.

예전에는 건설업체들이 많지 않았고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 정책 아래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규제 완화 차원의 면허 개방 이후 업체 수 증가와 건설산업 환경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급변하는 등 무한 경쟁 시대에 접어들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도태되고 마는 냉혹한 적자생존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건설인 또한 업체의 특성과 업역에 맞도록 사업 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CERIK

글·사진 : 이 형 우 편집장